

4. 마을의 특징

1) 관평(官坪)

1700년경에 관청이 있었다 하여 이곳을 관평(官坪)이라 부르며 관평(官坪) 앞들을 관앞들이라 부른다.

2) 땅골

오늘날 한울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原子爐)가 설치된 곳을 말한다.

3) 칠보산(七寶山)

태백준령(太白山峻嶺)이 뺏어내려 이루어진 산으로 ‘매가 보배를 안고 하늘을 나는 형국’으로 주민들이 인식하며, 7개의 보물이 내장되어 있다고 여겼다. 칠보는 인재등과(人材登科)의 보(寶), 충절(忠節)의 보(寶), 백자천손(百子千孫)의 보(寶), 교역(交易)의 보(寶), 어족(魚族)의 보(寶), 육축(育畜)의 보(寶), 온화(溫和)의 보(寶)를 뜻한다고 전한다. 칠보산을 중심으로 흥부장터가 번성하였으며, 영동지방의 대표적 장시로 이름이 높았다. 특히 흥부천 너머에 발달한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토염]은 동해안에서 이름나 강릉지방에서 이를 구입하기 위해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또 봉화와 영주 등 영남내륙을 잇는 물류 유통로인 ‘십이령바지계길’의 출발지였다. 또한 을사늑약 이후 관동의병(關東義兵)의 전적지(戰迹地)이며, 3·1만세운동 당시 대규모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된 곳이다. 1994년 무렵 칠보산이 해체되고 대형상가와 주거단지가 조성되었다.

4) 흥부장터 기미만세 기념비

북면기미만세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가 일제강점기 당시 이곳 칠보산 흥부장터에서 일어난 흥부기미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1995년 8월 15일에 조성하였다.

제17절 부구2리(富邱二里)[속명: 흥부(興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송골목(項) 옛 장터[七寶山 앞]가 있으며 부구1리와 접하고, 서쪽은 도록곡(道祿谷)의 시냇물을 경계로 부구3리와 인접하며, 남쪽은 부구천(富邱川), 큰들 남산(南山)과 불

미골이 있다. 북쪽은 뒷산 너머 만호곡(萬戶谷), 뒷골, 몽구실, 잣피골, 아랫개골, 옷개골, 도
 낫골, 장수밭 등이 있다. 마을의 속명은 ‘중흥부’이며, ‘아랫마’, ‘가운데마’, ‘샛마’로 이뤄져 있
 다. ‘경주 최씨 터전에 울진 장씨 배판’이라는 향언에서 경주 최씨와 울진 장씨가 마을을 처음
 개척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울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두산중공업 사택이 들어섰으며,
 다수의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다. 마을 성황당 우측에 달성 서씨 열녀각과 효자각이 나란히
 서 있다. 마을회관은 2002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585년경에 경주 최씨 선비가 잣골에 들어와서 마을을 개척(開拓)하니 농토가 비옥하고
 산세(山勢)를 보니 부자마을이 될 것 같아서 흥부(興富)라 하였다 한다.

3. 가구 분포

총 404세대가 거주하며 울진 장씨(蔚珍張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경주 최씨(慶州崔
 氏), 한양 조씨(漢陽趙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인동 장씨(仁同張氏), 평산 신씨(平山申氏)
 등이 세거를 이루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성황당(城隍堂)과 굴참나무

성황당에서 매년 정월 15일에 제사를 올린다.

2) 잣골과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선생

잣골은 부구2리 마을에서 가장 먼저 개촌된 곳으로, 우암(尤庵) 선생이 1671년에 거제
 (巨濟)로 유배(流配)되어 동해안을 지나면서 이곳 잣골에서 일박(一泊)할 때 만은공(晩隱公)
 전선(田銑)이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찾아 후하게 접대하였다는 설(說)이 전하고 있다.